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⑤:5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광장	00 튜튼생활제조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부부극장 공감지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잡지〉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정답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제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총부 아름다운 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 드라마 〈조선 총잡이 스페셜〉(재)	00 주말특별기획 〈호텔킹〉(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호텔킹〉(재)	00 SBS12뉴스 30 닥터 365 35 영상기획 한국의 명소
1	30 뉴스 특급	00 2014 전국 초등부 축구리그 개막전 〈안동초: 강구초〉	25 수목미니시리즈 〈운명처럼 널 사랑해〉(재)	00 건강클리닉	
2	40 직언직설	10 스카우트(재)	00 KBS 뉴스타임 10 글로벌 리퀘스트 쇼(재)	35 리얼스토리 눈(재)	00 SBS 뉴스 10 토크콘서트 화통
3	5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추로링 동물탐정(재) 55 TV 유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응개 쇼나타 40 헬로킴스 틀루랄라 공룡여행(첫회)	10 SBS 이슈 인사이트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튜튼생활제조(재)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30 독?독! 키즈쿨	00 품의 보석 프리즈쇼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 그래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웰투 투 시월드	00 KBS 뉴스7 30 특집 다큐멘터리 보리야 보리야! 찰보리야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국성 후보초청 토론회	00 수목드라마 〈조선 총잡이〉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명처럼 널 사랑해〉	00 드라마 스페셜 〈관찰야 사랑이야〉
11	40 먹거리 X파일(재)	30 KBS 뉴스라인	10 가족의 품격 플하우스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도시의 법칙
12	10 갈데까지 가보자	3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밀노트〉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아리 ①:10 함께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다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20 백일십의 그때 그사람	①:10 소중한 나눔의 이야기			①:05 SBS 컬처클럽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45 곤
05:40 얼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리얼토크 여왕의 외출	15:00 지구를 지켜라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15 마사와 곰
07:00 곤(재)	11:20 세계대마기행	15:30 꼬마거북 프랭클린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다이내믹! 필리핀군도〉(재)	15:50 바두와 친구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엉뚱장 유치원(재)
07:45 로보카 폴리(재)	12:10 EBS 초대석	16:20 우당탕탕 아이쿠
08:00 당당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0 책갈피 요정 도보
08:20 책과 땅(재)	13:10 초동2년 EBS 여름방학	16:45 Why-최고다! 호기심박자(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초동4년 EBS 여름방학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50 초동6년 EBS 여름방학	17:15 꼬마버스 타요
09:05 책갈피 요정 도보(재)	14:10 외출와글 친구들	17:30 로보카 폴리
09:20 미술탐험대	14:20 풀밭! 패파는 즐거워	17:45 두디다쿵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퓌덕! 보니하니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국어 1〉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40 초동2년 EBS여름방학생활
01:40 " 〈국어 1〉	12:15 5분 과탐·생명과과학 1	07:30 친절한 수학 의힘풀이 〈6-1〉	16:00 초동3년 EBS여름방학생활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1〉	12:15 수능 완성 〈수학 1 B형〉	08:00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16:20 초동4년 EBS여름방학생활
02:30 " 〈수학 1〉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동5년 EBS여름방학생활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00 " 〈국어 1〉	17:00 초동6년 EBS여름방학생활
04:10 " 〈과학〉	14:50 " 〈영어 ②〉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5:00 " 〈한국사(하)〉(재)	15:40 " 〈한국지리〉	09:10 TV 중학	〈과학 6-1〉
05:50 2013 포스	〈수학 1〉	09:50 " 〈수학 1(해)〉	〈영어3-1〉
06:40 암축탐스런	〈생명과학 1〉	10:30 " 〈도덕1〉	〈수학3-1〉
07:30 2014 포스	〈문학 1〉	11:10 " 〈국어 ③④〉	18:00 TV 중학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1〉(재)	17:20 " 〈경제〉	11:50 " 〈수학2(하)〉	18:40 " 〈수학3-1〉
09:10 " 〈수학 1〉(재)	19:50 5분 과탐·생명과학 1 (재)	12:30 등업신공	19:20 등업신공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13:10 " 〈역사1〉	20:00 중학특기특강
10:50 2013 포스	〈수학 1〉(재)	13:50 " 〈역사2〉	20:40 " 〈영어 ①〉
11:40 박복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21:00 " 〈문학 A형〉	14:30 " 〈사회2〉(재)	21:20 " 〈영어 ②〉
	23:00 " 〈영어독해연습 ①-종합편〉	15:20 초동1년 EBS여름방학생활	22:00 " 〈수학 ③〉
			22:40 EBS TV여름방학특강 중3 〈영어〉

知天命이 오는 오늘의 운세		7월 23일(음 6월 27일 乙未)	
	36년생 빈틈이 보일 수다. 48년생 잘 보고 조처하자. 60년생 작각으로 인한 오만을 하기 쉽다. 72년생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4년생 모순점이나 이질적인 요소는 확실히 배제하자. 행운의 숫자 : 91, 56		42년생 성사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니 최선을 다 하라. 54년생 인식한 예감과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66년생 잘 하면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78년생 전체와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02, 78
	37년생 서둘러서야 할 때다. 49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 될 수 있는 국면이다. 61년생 애매하다면 기반 보려는 것이 유리하다. 73년생 치우치게 되면 많은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85년생 부담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32		43년생 내려찍 두다면 약화될 게 뻔하다. 55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느니라. 67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79년생 예상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애를 먹겠다. 행운의 숫자 : 61, 47
	38년생 과감하게 청산 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50년생 파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62년생 외부적인 면까지 신경 써야 한다. 74년생 길경의 물결이 남 싹내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1, 38		44년생 서두르는 모습이다. 56년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68년생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야하면 제대로 되어 가리라. 80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48, 16
	39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51년생 명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봉합 되겠다. 63년생 개별 판단이 요구되는 면모이다. 75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3, 72		45년생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57년생 감정을 배제해야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69년생 급급적 가장 직접적인 일부러 하자. 81년생 지신을 낮출수록 귀히 대접 받으리라. 행운의 숫자 : 69, 80
	40년생 무리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52년생 새로움을 접하는 기쁨은 대단할 것이다. 64년생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관세이다. 76년생 일석이조의 행운을 잡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23		46년생 기대 했던 바 보다는 많지 아니한 이득이지만 짝짤하겠다. 58년생 모래 위에 쌓아 놓은 성곽에 불과하다. 70년생 해악이 예상되면 깔끔하게 제거해야 한다. 82년생 소박한 행복을 만끽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29
	41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다. 53년생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될 것이니 각오 해야겠다. 65년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수 순이다. 77년생 이미 벌어진 마당이라면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3, 54		47년생 충고에 따르는 것이 공극적인 해답이리라. 59년생 정도를 걷는다면 만사가 뜻과 같이 펼쳐지리라. 71년생 돈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득을 잡을 것이다. 83년생 원만하게 이끌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3, 6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			

‘군도:민란의 시대’



민중의 힘 ‘군도’ vs 영웅의 힘 ‘명랑’ 뜨거운 사극 대전 그 승자는 누구

민초들의 반란을 담은 ‘군도:민란의 시대’와 영웅 이순신의 활약을 그린 ‘명랑’이 극작가 최대 성수가 여름 시장을 놓고 피말라는 승부를 겨룬다.

각각 2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실업률 투입된 거대 사극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두 영화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각각 일주일 간격을 놓고 개봉하는 두 영화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민중’의 힘이나 ‘영웅’의 힘이나

역사를 바꾸는 건 백성의 힘일까, 한 명의 영웅일까. 오는 23일 개봉하는 ‘군도’는 학정과 부패가 판치는 정부와 귀족에 항거하는 민중의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의 중심축은 의적 패거리 ‘추월’이다. 반상의 차별에 진급이 좌절됐던 서얼들과 고리대금과 노동력 착취 탓에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농민, 양반이 시킨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가 몰살당한 백성 등의 사연이 펼쳐진다.

영화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가림주구(尙義誅求)하는 양반들을 몰아낸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의적 패거리의 선봉장 도치(하정우)가 어느 정도 극을 이끌지만 완벽한 원톱 주연은 아니다.

윤종빈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위대한 영웅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지 않는다. 여러 사람의 공동된 뜻이 세상을 진보시킨다”고 말했다.

반면, 오는 30일 개봉하는 ‘명랑’은 조선 최고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내세운 영화다. 임진왜란 당시 상당수 양반이 선조를 쫓아 북으로 향했지만, 많은 백성이 각종 의병활동에 참여하며 맹활약했다.

그러나 영화는 이 같은 민초보다는 고뇌하는 영웅 이순신에 초점을 맞췄다. 작전을 수행하는 백성의 모습이 간혹 비치지만, 영화는 어디까지나 전 재



SBS 장수 프로그램 ‘순간포착...’ 800회

MC 임성훈·박소현 “16년동안 휴가도 못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SBS의 진정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신용환 SBS 교양국장) SBS 교양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이하 순간포착)가 오는 24일 방송 800회를 맞는다.

‘순간포착’은 1998년 5월 6일 가정의 달 특집으로 처음 방송된 이후 지난 16년 2개월 동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들을 방송해 왔다.

그동안 ‘순간포착’을 통해 전해진 사연은 3834개, 등장한 주인공만 해도 2천507명에 이른다. 거쳐 간 PD와 작가만 해도 200명이 넘는다.

제작진은 800회를 맞아 ▲ 동물원을 탈출해 부산을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신창원 원숭이’ 생포 과정을 다룬 ‘부산원숭이’(1999년) ▲ 울거미에 목이 묶려 죽음에 내몰린 개를 구한 ‘누렁이 구조작전’(1999년) ▲ 성형중독으로 고통받던 여성의 아픔과 희망을 다룬 ‘선공피 아주머니’(2006년) 등 3편을 대표 방송으로 꼽았다.

‘순간포착’은 “특이한 사연을 평범하게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작 포인트”라는 허강일 PD의 설명처럼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간포착’의 또다른 강점은 임성훈과 박소현이라는 두 MC

적 인

이 순 신 의

지략과 강인한

의지를 중점적으로 부

각했다.

김한민 감독은 연출의 변에서

“두려움에 맞섰던 충무공 이순신의

기적 같은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감동과 울림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B급 활극의 힘 VS 화려한 전투신의 드라마

‘군도’는 액션 활극이다. 시원하게 말을 타고 평원을 달리는 장면부터 속도감 넘치는 칼싸움까지 웨스턴과 홍콩 소브라타스사의 무협물이 혼재하는 퓨전 사극이다. 여기에 우리네 판소리처럼 상황을 설명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해설도 웃음을 전한다. 영화는 170억 원 가까운 거액의 제작비가 들었지만, 영화를 관통하는 정서는 다소 B급 적이다.

반면 ‘명랑’은 61분에 이르는 ‘명랑해전’이 영화의 핵심이다. 포탄과 조총이 오가는 해전, 칼과 창, 심지어 낫까지 사용되는 육박전, 배와 배를 부딪쳐 상대 배를 파괴하는 ‘충파’(冲破)까지, 해전의 모든 전술과 기예가 총동원된다.

장르영화에 가까운 ‘군도’처럼 무협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장수들끼리의 칼싸움조차 다소 투박하다. 개인과 개인의 대결보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집단과 집단의 대결이 관전포인트다.

◇ 30대 ‘젊은 피’와 ‘노장’ 아닌 노장의 대결

‘군도’는 ‘대세남’ 하정우와 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강동원을 앞세웠다. 올해 개봉하는 영화 가운데 캐스팅만을 따졌을 때는 최강이라고 할 만하다.

지난해 ‘베를린’(716만 명)과 ‘더 테러라이브’(558만 명)로 13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하정우의 정점에 오른 연기와 여성팬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대표적 꽃미남 강동원의 복귀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반면 ‘명랑’은 50대에 접어들어 최민식의 물오른 연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간 오열하는 연기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줬던 그는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사이는 절제미를 통해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인다.

류승룡의 ‘독한’ 연기도 주목할 만하다. 상대를 질식시킬 듯한 무표정한 연기로 흥미를 자극한다. 적장 도도를 연기한 김명곤의 연기도 담백하고 절도 있다.

특히 조진웅은 ‘군도’에서는 의적 패거리 중 주요 인물인 태기 역으로, ‘명랑’에서는 이순신에 콤플렉스를 느끼는 적장 외기자가로 분해 대세 조연임을 입증했다.



가 16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데 있다.

임성훈은 22일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800회 특집 기자간담회에서 “순간포착을 진행하면서 매너리즘이나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저를 붙잡고 순간포착을 화제로 꺼내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게 보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소현은 “임성훈씨와 돌아왔기 때문에 1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 “우리 두 사람 모두 휴가를 가느라고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방송되는 800회 특집은 그동안 출연했던 주인공들의 가상현외한 도전현장을 찾아보고 전파를 타지 못한 미공개 영상들도 공개한다.

연합뉴스